

답이 아닌 길을 찾아서... 전문상담사 학습 '공감형 AI' 개발



정보연 풍대표

사회에 만연한 불안·긴장 해소 목표
중기부 '2024 창업기술 R&D' 선정
"2030년 웰니스기업 최초 상장 계획"

6개월 가량 밖을 나가지 않은 은둔고립 청년 A씨가 컴퓨터 앞에 앉았다.

A씨는 컴퓨터 키보드로 자신의 마음 상태를 써내려간다. "타인과 많이 비교를 하게 돼요. 그렇다보니 나 자신을 학대하고 또 자존감이 자주 낮아지는 것 같아요."

이번엔 A씨가 쓴 내용을 보고 컴퓨터가 다시 묻는다. "그렇게 느끼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어떤 순간에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나요?"

A씨와 컴퓨터의 대화는 계속 이어진다. 챗GPT는 대화를 통해 답을 찾아준다. 하지만 A씨와 대화하는 이 컴퓨터는 답을 찾는게 아니다. 길을 찾는다. 그러기 위해 꼬리에 꼬리를 물으며 계속 대화를 시도한다. 이 컴퓨터가 바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감정공감AI'다.

전문상담사의 의사결정을 학습한 '공감형 AI 상담 솔루션 개발'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스타트업이 있다.

사회치유기업(주)풍(Pong)과 정보연



정보연 풍(Pong)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대표다.

"회사명 '풍'은 '포용'의 준말이다. '삶속에 풍당 빠진다'는 뜻도 담겨 있다. 우리 사회는 불안의 힘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대로 가면 한국 사회는 소진할 수밖에 없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 긴장도 완화해야 한다. 이제 삶을 향유해야 할 때다. 이를 돕기 위해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정 대표는 2022년 12월 풍을 설립했다. 그동안 비영리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그는 나이 오십을 전후해 처음으로 영리법인에 뛰어들었다. 목적의 50%는 "돈을 벌기 위해서"라고 솔직히 말한다.

하지만 정말 큰 목표는 따로 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안, 긴장, 속도를 줄여보자는 게 대의명분이다. 언젠가는 꼭 도전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작했다.

정 대표와 풍이 개발하고 있는 AI 상담 솔루션 '감정공감AI'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4 창업기술 R&D'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는 "상담을 할 땐 감정에 공감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외로움, 수치심 등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AI를 만들자고 마음먹었다. 은둔고립 청년 등은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AI와 같은

매개체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AI는 상담을 받는 이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상담은 사람이 하게 된다. 인간과 AI의 협동상담이 되는 셈이다. AI는 상담을 위한 협력자다. 이렇게하면 상담 비용과 시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인공감성지능융합연구센터와 개발하고 있는 이 솔루션은 현재 특허 출원도 진행하고 있다.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청진기, X-레이, CT, MRI 등 다양한 진단기기를 사용하듯 AI가 사람과 대화를 통해 마음을 읽고, 공감하는 장치가 되는 것이다.

정 대표가 풍을 설립한 후 시작한 것은 '마인드#캠핑'이다. 리빙케어, 수용전념치료, 루덴스(라틴어로 '놀다'라는 뜻), 명상의 4가지 요소를 접목한 기본 6주 과정의 자기회복 프로그램이다.

풍은 그동안 은둔고립 청년, 18세 어린 자립준비 청년, 청년 공무원, 장애인, 청년 암환자, 1인 가구 청년,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교육청 등과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정 대표가 이처럼 '마음'에 자꾸 마음이 쓰이는 것은 개인의 경험 때문이다.

그는 40대 초반 대장암 2기 진단을 받고 6개월만에 간까지 암이 전이돼 생사

를 오갔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5년 생존 확률이 6%라는 진단을 받았다. 서울생활을 접어야 했다. 수술을 받았지만 항암·방사선 치료를 하지 않고 산속으로 갔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 약초를 이용하고 땀을 뜨고 명상을 했다. 암 진단을 받고 무엇보다 두려움이 컸다. 생존도 해야 했다. 불안과 긴장을 푸는 것이 우선이었다. 명상을 많이 할 땐 하루 10시간도 했다. 산에서 3년을 살다 내려와 이후엔 경기도 양평에 정착했다. 그러다 서울을 떠난지 12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그 사이 그의 몸에 있었던 암도 사라졌다.

정 대표는 청년 시절엔 시민회, KYC, 구의원 등으로 활동했다. 서울시에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정책을 담당했다.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장을 맡았다.

"웰니스기업 최초로 2030년께 상장을 할 계획이다. 현재 시드투자도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부터 정식으로 투자를 유치할 예정이다. 참 전투적으로 살았다. 그렇다고 행복하진 않았다. 열심히 살았지만 늘 불안했다. 긴장하며 살았다. 그러다 암도 걸렸다. 이제 진짜 자신의 삶을 향유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한샘, 전 제품 생애주기 관리 강화 홈 리빙 시장 친환경 트렌드 주도

인류에서 환경까지 사회공헌 확장
"엄격한 관리로 일류 기업 발돋움"

한샘이 지속 가능한 사회와 환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회공헌의 범위를 기존의 '인류를 위한 주거환경'에서 '환경'까지 넓혀 장기적인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 환경적 책임을 다하면서다.

한샘은 제품 생산 전 단계에 걸친 생애주기 관리를 통해 환경 부담을 최소화하며 대한민국 홈 리빙 시장에서의 선도적인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24일 한샘에 따르면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 폐기하는 모든 단계에서 환경 관리 목표와 전략을 수립해 실행하고 있다. 특히 업계 유일 공인시험 기관인 한샘연구소를 통해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생애주기를 길게 하고 결과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있다.

우선 핵심 원자재인 목재, 가죽 등에 대해 조달 단계부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친환경 원자재 조달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원자재 공급이 가능한 협력사를 선정하고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부엌, 수납, 식탁 제품은 자재 전용규격을 적용해 수율을 극대화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했다.



한샘연구소에서 연구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한샘

제조 과정에서도 각 제조 현장 및 건물 별로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집계해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소모량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포장, 마감재도 제품 수명을 연장해 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려 하고 있다.

소파와 패밀리저상침대의 하부 마감재를 기존의 부직포에서 패브릭으로 대체했다. 부직포는 시간이 지나면 닳거나 삭아 수명이 짧아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매트리스에는 반복 하중에 강한 블랙T 스프링이 포함되도록 설계를 변경했다.

침구, 속통류 제품 포장재도 PE나 비닐에서 면 100%, 또는 리뉴어블 납사로 대체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매트리스 배송시 별도의 포장용

파우치를 사용해 2차 포장을 진행하는데, 제품 배송 후 포장 파우치를 회수해 재사용하고 있다.

한샘은 2024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제품 생애주기에 따른 제품의 환경 영향 관리'를 9가지 중대이슈 중 하나로 꼽은 바 있다.

특히 폐기물로 인한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전 단계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한샘 관계자는 "한샘은 지난 54년간 국내 홈 인테리어 시장을 선도해오면서 단계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성장에 집중해 왔다"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엄격한 수준의 관리를 통해 일류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기보, '중소벤처 ONE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김종호 이사장 "DX시대 신속 대응"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디지털·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중장기 정보화 전략계획의 일환으로 차세대정보시스템인 '중소벤처 ONE 플랫폼' 구축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08년 구축된 노후화된 현행 IT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고성능·고효율 시스템으로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다. 시스템 분석과 설계를 시작으로 향후 17개월 동안 진행해 2026년 2월 오픈을 목표로 한다.

기보는 중소기업 ONE 플랫폼 구축

을 통해 ▲클라우드 기반의 인프라 고도화 ▲노후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 ▲사용자 중심의 고효율 업무시스템 구축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최적의 IT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IT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고도화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보는 내·외부 역량을 집중해 차세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 데이터 기반의 업무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확보로 디지털 대전환(DX)의 시대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노란우산 가입자 70% "소득공제 늘려야"

상향 희망규모엔 '900만 이상' 최다

노란우산 가입자 10명 중 7명은 소득공제 한도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발표한 노란우산 제도개선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9%는 '소득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로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31.5%였다.

이번 조사는 14~19일 소기업·소상공인의 퇴직금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22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향시 희망규모로는 '900만원 이

상'이 39.8%로 가장 높았다. 현행법상 사업소득 4000만원 이하는 부금의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가 커지면 월 부금액을 늘리겠다'는 응답도 79.3%에 달했다.

이창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단장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소득이 있을 때 노란우산 부금을 많이 적립할수록 폐업 등 위기 시에 안정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과감한 세제지원으로 소상공인의 부금 적립액을 높여 국가 부담을 줄이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되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